



■ 김효신의 포르투갈 여행기

포르투, 도우루 강이 흐르는 곳

36. 파두: 코임브라 스타일

파두 공연을 보며 나는 문득 포르투갈 작가 페르난도 페소아의 시 '포르투갈의 바다' 를 머리에 떠올렸다. 포르투에 도착한 날 정어리 통조림 가게 '포르투갈 정어리의 환상적인 세계' 에 들어 갔을 때 벽에 써 있는 것을 보았다. 물론 포르투갈어로 적혀져 있었지만 유명한 작가의 시라서 사진을 찍어 나중에 번역기로 번역해 보았다.

'오, 소금의 바다여, 그대 소금의 얼마가 포르투갈의 눈물인가? 그대를 건너기 위해 얼마나 수많은 어머니들이 눈물을 흘렸으며, 얼마나 수많은 아이들이 헛된 기도를 올렸나? 오, 바다여, 그대가 우리 것이 되기 위해 얼마나 수많은 신부들이 결혼식을 올리지 못했나? 가치가 있을까? 모든 것이 가치 있다. 영혼이 작지 않다면, 누구라도 보자도르 너머로 건너 가기 원한다면 고통을 넘어 가야 한다. 신은 바다에 위협과 심연을 주었다. 그러나 그의 안에서 하늘이 거울처럼 비춰졌다.' -페르난도 페소아--

대항해 시대로부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바다로 나가서 영영 돌아오지 않았을까? 그들을 그리워하며 대대로 얼마나 많은 포르투갈 사람들이 애끓는 노래를 불렀을까? 페소아의 시는 그 노래들의 정수를 표현한 것 같았다. 나는 무대 위의 여자 가수를 보면서 속으로는 아말리아 호드리게스의 노래를 생각했고 페르난도 페소아의 시를 다시 한 번 새겨 보았다.

애절한 파두를 부르다가 수다 떨 듯 코믹 연기를 하던 여자 가수의 무대가 끝났다. 조명이 검게 변하며 무대와 공연장 전체에 어둠이 내렸다. 잠시 후 기따라 연주와 함께 무대 위에 스포트라이트가 쬐었다. 누군가 무대 위로 올라왔다. 아까 입장할 때 와인을 따라 주던 공연장 사장님이었다. 엄숙한 표정을 하고 검은 담요 같은 것을 몸에 휘감았다. 그는 무대 위로 올라와 스포트라이트 한가운데 서서 눈빛을 멀리 위로 고정시켰다. 그리고 노래를 시작했다.

그의 목소리는 우렁차고 맑았다. 거대한 채구에서 터져 나

오듯 거침없이 울려 퍼지는 바리톤 목소리가 공연장을 진동시켰다. 그는 시선을 고정하고 무대에 꼼짝 않고 서서 노래를 불렀다. 진솔한 표정으로 온몸과 마음을 다 바쳐 부르듯 크게 뜨고 있는 두 눈에서 눈물마저 흘러 내릴 듯하다. 가사는 이해하지 못했지만 멜로디는 로맨틱하면서도 씩씩했다. 코임브라 스타일 파두였다.

코임브라는 포르투에서 약 120 킬로미터쯤 떨어져 있는 역사 도시이다. 13세기에 리스본으로 수도를 옮기기 전까지 포르투갈의 수도였다고 한다. 지금은 13세기에 창립된 코임브라대학교로 유명한데 이 학교는 유럽에서 가장 오래된 대학교 중 하나로 알려져 있다(망토를 두르는 해리포터의 마술학교 교복이 코임브라대학교의 전통 교복에서 영감을 받아 만들어졌다고 한다).

코임브라 파두는 코임브라에서 시작되어 코임브라대학교에서 본격적으로 무르익었다. 원래 여러 명이 모여 부르는 것이 원칙이고 기따라 반주에 맞추어 남자들만 부른다. 남자들이 모여 망토를 두른 교복을 입고 여인의 창밖에서 세레나데를 부르든가 공적인 장소에서 공연하 듯 부른다고 한다.

검은 망토 대신 검은 담요를 휘감은 무대 위의 사장님은 계속 해서 여러 곡의 코임브라 스타일 파두를 선보였다. 개인적으로 나는 리스본 스타일보다 코임브라 스타일이 훨씬 마음에 들었다. 포르투갈어 가사는 이해할 수 없었지만 가끔 들리는 '마르(바다)' 라는 단어로 미루어 보아 분명히 바다에 대한 노래들이었다. 우수에 가득했으나 그리움과 슬픔을 넘어 내일을 기약하는 듯한 기상이 서려 있었다. 사장님 외 여러 명이 올라와 불렀으면 더 극적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조그만 공연장이니 안내도 하고 노래도 하는 사장님에게 힘껏 박수를 쳐 주었다. '파두 나 바이샤' 공연장은 가격도 매우 저렴하고 파두에 대해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면 약한 시간 정도 부담없이 파두에 대해 배우고 들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했다. R과 나는 매우 만족했다.

Lic. #920169 Since 2007 Insured & Bonded

지붕에 관한 모든 것 블루 크루에 맡기세요

Blue Crew

무료 견적

- 신축, ADU, Addition 지붕공사
- 태양광 관련 문의 및 자문환영
- 가정집, 아파트, 커머셜, 지붕수리 및 재시공

www.coolroofservice.net
(213) 820-3789 LA
(714) 224-8394 OC

Buena Park Nursing Center ★★★★★

부에나 팍 양로병원

- ▶ Skilled Nursing
IV 투여, 당뇨 및 투석관리, 스페셜 통증관리, 튜브영양법, Wound Care, TPN 등
- ▶ Subacute Unit
Respiratory Therapy, Tracheostomy Care Ventilator 등

서비스	재활치료
한국음식 또는 미국음식 한국인 스태프 / 한국인 소셜워커 한국책, 신문 / 24시간 한국방송 다양한 한인교회 봉사활동	물리치료 (PT) 작업치료 (OT) 언어치료 (ST)

메디케어, 개인, 메디칼, HMO, PPO 취급합니다

한국어: 562-240-3516 www.buenaparknc.com
 영어: 714-828-8222 Fax: 714-828-1467
 8520 Western Ave, Buena Park, CA 90620

어바인 Total Care & 임플란트 치과

시니어 스페셜!

65세 이상 메디케어로 받치, 뼈이식등 구강외과 혜택 가능

메디케어 인증 병원
 컴퓨터 가이드 임플란트 시술로 무절개, 무통증, 빠른 회복, 치과공포 있으신 분 정맥마취로 자면서 치료 가능

James Kim 치과
949.727.0777
 한국어문의 949-702-7811
 113 waterworks way #220
 Irvine, CA 92618

74420 Hwy. 111 Suite 1, Palm Desert, CA 92260
 760.779.5662 (팜스프링 지점)